



남원소방서장, 전통시장 현장 지도점검 실시

남원소방서는 8월 10일, 관내 전통시장(공설시장, 용남시장)을 대상으로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9일 전주시 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올해 2월 남원 공설시장에서 발생했던 화재를 거울삼은 것으로, 남원소방서는 전통시장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시장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한층 더 높이고자 현장 지도에 나섰다.

이날 현장을 찾은 남원소방서장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이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 예방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의용소방대연합회, 폭염 안전지킴이 봉사활동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양성복, 허경이)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폭염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 특보 발령이 빈번해짐에 따라 온열질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재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활동은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홍보 전단지 배부하고 야외 근로자들에게 얼음물을 전달하며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알리고, 가장 무더운 시간대 작업 자재 및 휴식 당부했다.

또한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열악·체온 등 기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말동무가 되어 정서적 안정을 지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서, 편의점 · 1인 점포 범죄예방 총력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는 최근 편의점을 겨냥한 강력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범죄 취약 업소인 편의점과 1인 점포 등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및 대응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은 관내 편의점, 금은방 등 방범 취약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긴급신고시스템(비상벨), CCTV 사각지대, 경비업체 연계 상태 등 방범 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작동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을 권고하고, 야간 시간대 순찰 노선을 강화하는 등 특별 방범활동을 전개 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국인 최초 미 대학 졸업생 ‘변수 선생’ 발자취 따라”

도내 모범학생 3명,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주관으로 뉴욕·워싱턴DC 주요 기관 탐방

전북특별자치도 내 모범학생 3명이 미주 호남향우회의 초청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 속에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 일대를 아우르는 글로벌 역량 강화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탐방은 미주 호남향우회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협력하여 고향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들에게 세계적인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담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해 뉴욕호남과 운대이션, 뉴욕 호남향우회, 메릴랜드 호남향우회, 필라델피아 호남향우회의 지원으로 국내외 지자체와 동포 사회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인재 양성 사업으로 추진됐다.

전북과 전남에서 각 3명씩 선발된 학생들은 먼저 예일 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등 미국 명문 대학을 차례로 찾아 강의동과 도서관을 직접 걸으며 미국 명문대의 교육환경과 대학문화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어 UN 본부, 백악관, 의회 의사당,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 현장을 직접 견학했다. 또한,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을 방문해 인류가 우주로 향한 발자취를 마주했다. 이외에도 자유의 여신상과 엘리스 아일랜드,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9·11 기념공원, 월스트리트와 타임스퀘어를 오가며 도시의 오늘과 상처, 활력을 함께 읽어냈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1891년 메릴랜드 농과대학(현 메릴랜드 대학교)을 졸업하며 한국인 최초로 미국 대학 정식 학사 학위를 취득했던 조선 말기 선각자 변수(邊綏, 1861~1891) 선생의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깊은 일정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변수 선생의 묘소를 찾



아 130여 년 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선구자적 정신으로 글로벌 무대에 도전했던 변수 선생의 기개를 가슴에 새겼다.

아울러 탐방 기간 중 현지 향우회 임원진과의 간담회가 마련되어, 이민 선배들의 생생한 삶의 궤적과 고향에 대한 애정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저녁에는 향우 가정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홈스테이로 재외동포 사회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다.

탐방에 참가한 한 학생은 “이처럼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와 미주 호남향우회 선배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훗날 세계 무대에서 고향을 빛내는 인재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미주 호남향우회 여러 단체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준 덕분에 전북의 소중한 인재들이 넓은 세상을 체험했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전북자봉센터,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맞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승경)와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가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와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비롯해 법무 보호 사업 홍보, 지역사회 연계 강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 보호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영호 이사장은 “자원봉사는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라며 법무 보호 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경 지부장도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법무 보호 대상자의 자립과 사회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탬이다. /이만호 기자



남원금동 발전협의회,지역 어르신 700여명에 콩국수 대접

남원시 금동 발전협의회(회장 최재우)는 11일 말복에 남원시 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700여 명을 모시고 시원한 콩국수를 대접하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여름나기를 돕고,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돌보는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최인술)가 제공한 면과 지역업체인 노고단 식품(대표 강상길)이 기부한 콩물을 활용해 콩국수를 만들었으며, 남원시 노인복지관(관장 장진석)은 장소 마련과 행사 진행을 지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취약계층 어르신에 음식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본부장 이영신)가 폭염 속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건협 전북지부는 11일 지역 사회복지관과 함께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음식 전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음식을 전달하며 생활 속 건강관리를 돕는 데 의미를 뒀다.

이날 건협 전북지부 임직원들은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정성껏 밑반찬을 조리하고,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음식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음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살펴며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순창경찰서, 실버카 안전조명등 100대 설치완료

순창경찰서(서장 박삼서) 교통관리계는(자치경찰사무) 지난 11일 순창읍과 구림면을 찾아 관내 실버카(전동휠체어 등 보행보조수단) 소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조명등 100대 설치를 진행했다.

고령자들의 주요 이동 수단인 실버카에 안전등 설치로 시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새벽·야간 시간대 도로 위 교통약자의 사고예방을 위함이다.

우리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10,644명이며, 매년 고령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만명당 0.9명으로 나타나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순창=이왕철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조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